

미래교육 무엇을 할 것인가?

제1회 전북교육포럼 성료… 미래사회 사회정서능력 중요성 등 발표

제1회 전북교육포럼이 11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77주년 기념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북교원단체총연합, 전북교사노동조합, 좋은교육시민연대, 전북교육공무원노동조합, 전북학력신장협의회, 전북교육발전 참여연대 등 6개 단체가 주최하고 대학학생회, 고등학교학생회, 장애아동특수교육, 어린이유아교육, 학부모자녀교육, 체육교육, 예술교육, 학교운영회, 다문화어린이교육, 중앙예류 등이 참여했다.

이날 전북교사노동조에 따르면 전북교육포럼은 김희수 준비위원장의 개회사와 정동영 국회의원,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등 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교육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운태 우석대 교수는 '미래교육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미래사회에서 사회정서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유럽과 OECD의 미래 교육 방향을 소개하며, "Z세대의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정서능력 교육이 긍정적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고 말했다.

특히 "AI 환경에서는 사회 분열과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정서능력 함양이 필수적이며, 미래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 김경범 교수(서어서문

학과)는 '학교 교육과 대학입시 동반 개혁-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주제로 저출산, 사교육비 등 현재 교육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를 조망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학교 교육의 방향과 대학입시 개혁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큰 변화가 예고된 대학입시에서 학교 생활기록부의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며, 우리 아이가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르는 학교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지정토론에서 첫 번째 발언자인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육다운 전북교육, 학교다운 전북학교'라는 주제로 교육공동체가 해결되고 갈등을 빚는 현재 한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 상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제·개정과 제도 변화, 교육청·경찰청·지자체로의 행정업무 이관을 통

한 교원의 업무 경감, '진로 연계 학기',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연계 대책 마련 등의 진로 및 진학 지원 강화, 임금 인상을 통한 교원 처우 개선을 강조하며, 교육의 질 향상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전북교육청은 전북학생들의 꿈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두 번째 지정토론에 나서 전북교육의 문제 인식 개선 방향을 토대로 전북교육 혁신 전략을 세워 P학교 벤치마킹, 교사 행정 업무 경감, 지자체와 대학의 연계 역량 강화 등을 강조하고,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리스크 대응 방안과 기대 효과에 대해 말했다.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 활성화, 기업 협력형 산학 프로젝트 등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한약학과, 제26회 국가시험 100% 합격

우석대학교 한약학과가 한약사 국가시험에서 3년 연속 수석 합격자를 배출함과 동시에 응시생 전원이 100% 합격하는 경이사를 맞았다.

이에 따르면 제26회 한약사 국가시험에서 김민우(한약학과 4년) 학생이 250점 만점에 224점을 취득해 전국 수석 합격자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한약학과 재학생 42명 전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한약사 국가시험은 전체 133명의 응시자 중 120명이 합격해 90.2%의 합격률을 보였다.

김민우 학생은 "학과 교수님들과 동기들 덕분에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학과에서 배운 지식과 실습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약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용덕 한약학과장은 "이번 성과는 교수진과 학생들 모두가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과의 명성을 이어가며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 한약학과는 신호철·박주현(19학번)에 이어 3년 연속 수석 합격자를 배출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금속공학과 대학원생들 제19회 스틸챌린지 상 휩쓸어

전북대학교 금속공학과 대학원생들이 최근 세계철강협회 주최로 열린 '제19회 스틸챌린지'에서 상을 휩쓸었다.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대회에서 전북대 이준호 박사과정생이 대상을 차지하며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고, 최정후·김성진 석사과정생이 각각 금상, 또 최승혁 석·박사통합과정생이 은상을, 성문재 석사과정생이 동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준호 학생은 동아시아 지역 우승자로서 오는 4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세계 철괴인심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34개국 2,624명의 참가자가 경합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전기로와 2차 정련 등의 공목에서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북아시아, 유럽·아프리카, 미주 등 5개 지역으로 나뉘 지역별 대회를 치렀다.

이번 스틸챌린지 준비를 위해 전북대 학생들은 지난해 3월부터 신소재공학부 이석재 교수와 함께 스터디팀을 구성, 주 1회 시뮬레이션 모듈과 철강 작업에서 발생하는 물리·화학적 반응을 공부하고, 최적의 철강 생산 방법을 모색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G-램프 사업단에서 주관한 첫 번째 국제 기초과학 포럼이 지난 6~7일 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북대 G-램프 기초과학 포럼 성료

옥스퍼드대학 로버트 테일러 교수 등 석학들 연구 동향 공유
전북대 연구진 연구 과제 공유… 글로벌 연구 협력의 장 열어

전북대학교 G-램프 사업단(사업단장 김희선)에서 주관한 첫 번째 국제 기초과학 포럼이 지난 6~7일 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국제포럼은 G-램프 사업의 중점테마연구소인 물질에너지기초과학연구소를 구축한 전북대가 국내외 저명한 과학자들을 초청해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공동 연구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사업단은 매년 국제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글로벌 공동협력

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초과학 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럼에서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로버트 테일러 교수,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의 이세희 교수, 중국 칭화대학교의 김기환 교수, 미국 휴스턴대학교의 류재현 교수 등 세계적인 학자들이 참석해 최신 연구 동향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발제자로 나선 로버트 테일러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을 이용한 단일 광자 발생기 개발을 통해 0차원 구조의 새로운 광학적 응용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이

목을 끌었다.

또한 이세희 교수는 '배터리 분야의 혁신적 연구'를, 김기환 교수는 '양자 컴퓨터 및 양자 시뮬레이터 개발'에 관한 최근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반도체 분야의 석학인 류재현 교수는 '반도체 기술의 최신 동향'에 대해 전했다.

한편 G-램프 사업 참여하는 전북대 김대위 교수(생명과학과) 등 15명의 연구진은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를 공유하며 전북대 연구 역량을 선보였다.

김희선 사업단장은 "이번 국제포럼은 전북대와 세계 각국의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학문적 교류를 극대화하고 앞으로의 공동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이를 계기로 기초과학 연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중국 교육기관 통한 우수 유학생 유치 행보 나서

천진시 지역 교육기관과
한국어 교육 위한 MOU

전북대학교가 중국 내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11일 전북대학교 국제처(조화림 처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국 천진시에 위치한 천진 항신교육그룹과 한국어교육 및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천진 항신교육그룹 송효동 이사장과 천진 오우합박국제학교 마봉동 교장, 천진 항신교육그룹 한국부 권성진 대표 등이 전북대를 방문해 이뤄졌다.

이 교육그룹은 남대오우고등학교, 천진오우합박국제학교, 남대오우배훈 대학입시학원 등을 운영하며 20여 년간 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조화림 국제처장은 "전북대학교의 오랜 한국어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대학교는 지난 10일 중국 천진시에 위치한 천진 항신교육그룹과 한국어교육 및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국 현지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 학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해외 한국 어학당 공동 설립을 통한 현지 한국어 국제반 설립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수 학생들이 전북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앞서 김정수 언어교육부처장은 지난 1월 천진시를 방문해 해당 교육시설을 참관했다. 김 부처장은 "전북대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중국 현지 교육기관에 이식해 현지 학생들의 한국어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전북대학교로의 입학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어를 매개로 한 글로벌 교육 협력 본격

전북교육청, '2025년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선정

한국어교육 기반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부 공모 '2025년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선정, 한국어를 매개로 한 글로벌 교육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 신규로 선정된 3개 시도교육청 중 6억원 이상의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국내의 교육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학생과 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한국어 기반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세계와 소통'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전북형 글로벌 세계시민'을 비전으로 시애틀, 동경, 태국 등 3개 지역의 한국교육원과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어를 채택한 해외 학교들과 연계한 교류수업을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브릿지 캠프 및 글로벌 프론티어 해외탐방 등 국제교류 진로캠프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통한 한국어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와 소통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함양하고, 세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5학년도 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확정

공립 중등학교 교사 등… 일반 339명 · 장애 2명 총 341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341명을 확정, 누리집(www.je.go.kr)에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총 372명(일반 339명, 장애 33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제1차 시험에서 531명(일반 529명, 장애 2명)이 합격했으며, 최종합격자는 341명(일반 339명, 장애 2명)이다.

개인별 합격여부와 성적은 오는 18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https://educarecruit.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시험을, 제2차 시험은 수업실현 능력과 교직적성 심층면접, 체육·음악·미술은 추가로 실기평가를 거쳤다. 배점은 제1차·제2차 각각 100점 만점을 기준이다.

중등교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한국

사 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3급 이상인 자 중에서 제1차 시험 성적에 가산점(체육과목)과 가점(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인원의 1.5배수를 뽑고, 최종합격자는 가산점을 제외한 제1차 시험의 성적(가점 합산)과 제2차 시험 성적(가점 합산)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했다.

한편 이번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는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병행할 예정이며, 연수기간과 수강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은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삶의 가치를 함께 배워가는 과정"이라며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 돕고 성장하며,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워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10~11일 이틀간 여수 일원에서 전북학부모협의회 워크숍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전북학부모협의회 위원들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년 전북학부모협의회 워크숍 개최

국제교육 필요성 · 운영방식 브리핑 듣고 체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0~11일 이틀간 여수 일원에서 전북학부모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내 767개 학교 학부모회와 14개 지역 학부모회를 대표하는 전북학부모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교육청 국제교육원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을 방문해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다.

특히 전남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는 국제교육의 필요성과 운영방식 브리핑을 듣고 체험하며 글로벌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

이어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는 학부모, 학생,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거버넌스 사례를 공유했다.

정유미 전북학부모협의회회장은 "학부모 간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 참여를 이끌어내고, 학부모와 교육청 간의 건강한 협력관계를 맺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학부모회는 학교와 학부모, 학생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부모들이 더욱 주체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